

용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0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가 운영 중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의 보증 한도액이 조만간 소

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와 협약 기관들은 총 21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산구는 보증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와 홍보를 맡고, 특별보증 재원 2억 원을 출연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10억 원을 추가 출연하며, 하나은행은 3억 원, 새마을금고는 6억 원을 각각 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262.5억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신용보증지원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융자금리는 연 2.5%~3% 수준의 3개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력 금융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와 경계를 넘어 누구나 주인공 되는 마포구 ‘가을문화예술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는 2025년 마포구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제2회 누구나 함께 누리는 가을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의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장애인 예술인들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고 예술로 하나 되는 포용적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가을문화예술제는 10월 21일부터 10

월 31일까지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리는 ‘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로 시작된다.

전시회에서는 장애인 예술인 156명이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완성한 그림, 유화, 공예, 사진 등 218점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0월 24일 오후 3시에는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누구나 함께하는 장애인가을문화예술 공연발표회’를 개최한다.

공연발표회에는 발달, 시각, 지체 등

9개 시설과 단체 소속 장애인 177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재능과 개성을 담은 난타, 수어 노래, 연극, 창작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풍성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노력으로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과 공감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개관 2주년 맞아 '우주와 과학' 축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별빛 우주과학관(관장 심재현) 개관 2주년을 맞아 ‘스타 투게더(Star Together): 우주와 과학의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천체영상전, 과학마술쇼, 전문가특강,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천체영상전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냥박사의 왜냐옹(알송달송 별자리) ▲길냥이키츠(국제우주정거장의 비밀) ▲길냥이키츠(슈퍼문 대모험) ▲오로라 Lights of Wonder 영상을 볼 수 있다. 천체영상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과학관 앞마당에서는 과학마술쇼가 진행된다.

매직사이언스, 과학술사, 과학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다. 우천 시 사전예약자 한정, 과학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특강도 마련됐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한국의 전설과 우주’ (11월 1일) ▲권오철 천체사진작가의 ‘신의 영혼 오로라’ (11월 2일) 및 ‘밤하늘 촬영기’ (11월 9일) ▲이태형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의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11월 8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2주간 진행된다.

특강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회차별 65명 선착순 모집으로 초·중·고생 이상이면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이다.

부대행사로는 ▲3D펜으로 키링 만들기 (11월 1일) ▲행성 네온사인 조명/탈무드 등 만들기 (11월 2일) ▲누리호, 망원경, 우주왕복선 등 모형 만들기 (11월 1~2일) ▲올해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야간관측’ (11월 5일) 등이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지원과(☎02-2600-6938) 및 강서별빛 우주과학관(☎02-2661-3346)으로 하면 된다.

'노들섬' 첫 삽... 자연·예술 공존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조성

서울시, 21일(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28년 완공 목표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을 맛집’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뒤 방치돼 있었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후 2006년 한강예술섬 조성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며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음약섬’으로 개선·운영했지만 그동안 서쪽 공연장과 편의

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동쪽 숲과 수변 공간은 이용률이 낮았다.

이번 사업은 기존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 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하고, 동쪽 숲은 낙엽활엽수의 다층 구조의 숲으로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체 설계는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이 맡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헤더윅은 런던의 ‘롤링 브릿지(Rolling Bridge)’,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베슬(Vessel)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다.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1호(공공분야)인 노들섬 매력을 최

대한 발굴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 공모와 대시민 공개포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헤더윅의 작품을 선정했다.

‘수변문화공간’은 생태계 복원과 접안시설을 개선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휴식, 체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하늘예술정원’은 7개의 비정형의 ‘떠 있는 꽃잎’으로 구성된 공중정원으로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꽃잎들은 보행로로 연결돼 시민 누구나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노을과 도시 경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총사업비는 3,704억 원이고, 올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는 홍수위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조성이 조기 완료되는 구간은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흐르는 강을 넘어 서울의 품격과 문화가 흐르는 한 축으로 한강을 변화시키는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지향하는 디자인은 외형의 멋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으로, 노들섬은 그 철학을 구현하는 첫 수상무대”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성 기자

가을 노을 아래 서울의 멋과 맛이 한가득...서울바비큐페스타 개최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10.25.(토)~26.(일) 양일간 K-바비큐 모든 매력 즐기는 글로벌 미식 관광 축제 열려

서울시가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서울 노을공원 캠핑장(마포구 하늘공원로 108-2) 일대에서 한국 대표 미식 문화인 K-바비큐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미식 관광 축제 ‘서울바비큐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도심 속 자연에서 즐기는 K-바비큐를 주제로 ‘올인원 셀프 바비큐존’, ‘서울 고깃집 3대장’, ‘서울 바비큐 로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안동·춘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한돈과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해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올인원 셀프 바비큐존’이 주목된다. 1·2차 사전 예약이 각각 30분, 2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행사 당일엔 일부 현장 예약 이용 좌석도 운영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고깃집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서울 고깃집 3대장’도 열린다. 줄 서서 먹는 맛집 ‘남영돈’, 흑백요리



사 출신 오준탁 셰프의 맛집 ‘닭’, 성시경이 추천한 한우 맛집 ‘해봉정육’이 참여하며 이번 축제를 위해 개발한 한정 신메뉴를 특별히 선보일 예정이다. ‘남영돈’의 숯불화로구이, ‘닭’의 장작더미 전시, 해봉정육 육부장의 한우갈비

정형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준비되어 있다.

‘서울 바비큐 로드’에서는 ‘몽땅’, ‘양인환대’, ‘합정합계’, ‘찢은고기’, ‘양춘떡갈비’ 등 젊은 세대에겐 인기를 끌고 있는 맛집들이 참여해 다양색의 K-바비큐를 입맛가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 바비큐 전시·체험 프로그램 ‘조선 바비큐 체험’이나 바비큐와 함께 한강 라면을 즐기는 특별 공간 ‘해피남남 라면가게’도 운영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K-미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대형 아트빌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포토존’, ‘카카오 프렌즈 포토존’이 마련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 카페 in 바비큐(1일 3회 운영, 회당 이용료 5천 원)’도 운영된다.

이장성 기자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선정 추진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에, 민간공사는 현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10.31까지 신청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투명성·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들에게 동영상 촬영·기록관리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이후 서울시는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1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록관리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번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선정’은 서울시가 공공·민간부분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

리 우수현장을 발굴하여 표창 수여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서울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하려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성실히 동참하였고, 안전·품질 등 현장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이다.

참가신청은 10월 31일 금요일까지 공공 공사현장은 발주기관에, 민간 공사현장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활용계획 충실도, 적정 활용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이다. 발주기관·자치구에서 참가신청 서류 등 사전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11월 중에 공공·민간 부분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시장표창할 공공부문 8개소·민간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12월 중에 표창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장성 기자

